

기황후 '연화역' 열연...성공적으로 첫 사극 마친 윤아정

“기황후 끝날 때까지 ‘연화’ 잊지마세요”

지난해 MBC 드라마 '백년의 유산'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만난 연기자 윤아정(31)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윤아정을 보고 새삼 깨달았다.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했고, 안부를 묻는 말투에는 여유로움이 넘쳐흘렀다. 편안해졌음을 자신도 느끼는지 살며시 웃는다.

윤아정은 '백년의 유산'에서 악역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뒤 지난해 10월부터 '기황후'에 무수히 연화역으로 출연했다. 8일 방송에서 자신이 모시던 바안(임주은)의 계약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하며 종영을 3주 앞두고 하차했다.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았을 터.

“제가 몸담은 작품은 저와 함께 간다는 느낌이다. 제 분량 끝났다고 해서 작품이 막을 내리는 건 아니니까. 저는 먼저 가서 다른 연기자들보다 후련함을 빨리 느꼈지만 끝날 때는 함께 축하하는 마음이었고.” 그러면서 한 마디 붙인다.

“누군가가 제를 연화를 한 번씩 언급해줬으면 좋겠다. '기황후' 끝날 때까지 누군가에게도 잊혀지지 않고 싶다.”(웃음)

아쉬움이 묻어나는 말이었지만 첫 출연부터 하차하는 그 순간까지 윤아정은 강한 인상을 줬다. 특히 연화의 처절한 인상을 연

사극 품 이룬 작품...한층 성숙해진 느낌 다양한 캐릭터 보여주고 싶은 욕심 여전 시청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다

기하는 모습은 시청자의 뇌리에 강하게 남았다. 첫 사극이지만 그렇게 성공의 기록을 남겼다.

“사극을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꿈을 이뤘다. 사극 의상을 입은 제 모습도 궁궐했고, 첫 장르에서 처음으로 만날 모습에 흥분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많은 선배들을 통해 사극의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

윤아정은 스스로가 기록하고 그래서 고맙다. 그리고는 “허전함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다”고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다. 이어 “업된 느낌이다. 한층 성숙해진 느낌이다. 기분이 너무 좋고 제가 느끼기에라도 지금 저는 밝다”고 자랑했다.

윤아정은 13일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 모드'로 돌아간다. “몸을 바베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한다.

“일이지만 연기하는 제 모습이 살아있다

는 증거다.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놓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제가 놓고 뒤돌아버리면 끝이지 않느냐.”

예뻐졌다고 하자 윤아정은 “다들 저를 항상 째러본다. 눈에서 불이 나고, 뒤에서 제락을 꾸며 모함할 것 같고, 차갑게 느껴진다고 하던데”라며 칭찬에 고개를 가웃거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말한다. 지금까지 자신을 “아주 ‘조끔’ 보여줬다”라고.

“그동안 제 역할에 치여 다른 사람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이제 여유라는 게 생긴 것 같다. '기황후'를 통해 이전과 다른 윤아정을 봤다는 반응도 많은 도움이 됐다.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다.”

첫 번째 인터뷰 때와 마찬가지로 장르를 가지 않고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고 싶다는 바람은 변하지 않았다. 욕심을 부린다면, 대중에게 지금보다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다.

“제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저는 선택을 받는 입장이니, 스스로 재정보해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있겠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MBC 드라마 '백년의 유산'과 '기황후'에 연이어 출연했지만 지친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시청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윤아정은 “10분의 1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새로운 모습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오렌지카라멜 머리 위 음식물 삼각김밥·오렌지주스는 진짜

'카탈레나'로 활동 중인 그룹 오렌지카라멜은 요즘 음악방송에 출연하며 모형 음식물을 머리에 올린 채 무대를 꾸미고 있다. 초밥을 시작으로 김밥, 피자, 삼각김밥과 김치 떡볶이, 감자튀김, 과일주스 등 다양한 음식을 모형으로 꾸민 소품들이 방송마다 제각각 다른 형태로 오렌지카라멜의 멤버들 머리 위에 오른다. '카탈레나' 뮤직비디오가 '초밥의 암투'라는 이색적이면서 코믹한 콘셉트여서 오렌지카라멜 멤버들은 초밥을 다양하게 형상화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나



오렌지카라멜의 모형 음식물 소품. 독특한 전략으로 음식을 듣는 즐거움은 물론 보는 재미도 주고 있다. 사진출처 | 플레디스 공식 페이스북

서고 있다. 그러다 이제는 머리에 초밥 장식을 하게 됐고, 그에 대한 반응이 좋아 다른 모형 음식물까지 만들게 됐다.

TV화면으로 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형이라는 걸 금세 알아챌 수 있는 음식도 있지만, 실물과 똑같이 보인다. 물론 대부분 실물 그대로다. 오렌지카라멜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직접 손으로 만든 '가내 수공업' 제품이다. 이들이 선보인 음식 중 떡, 삼각김밥, 포장김치, 스팸, 사탕, 오렌지주스 등은 실물을 그대로 활용했다. 도넛과 피자, 케이크 등은 음식점 전사용 모형 음식을 제작소를 찾아가 구입했고, 존독이, 감자튀김처럼 스타일리스트가 여러 재료를 구입해 직접 만드는 소품도 있다.

실물 음식을 사용하다보면 작은 '사고'도 발생한다. 투병 플라스틱에 담긴 오렌지주스의 경우 뚜껑과 컵의 접합부분에 실리곤을 칠해 틈을 막았지만 리허설 도중 주스가 새어나와 멤버들의 머리를 적시기도 했다. 떡과 사탕 등 일부 음식은 무대가 끝난 후 간식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트위터@ziodadi

ON AIR 채널A 밤 11시 웰컴 투 시월드

송도순 “모든 유산, 며느리 줄 것”



방송인 송도순(사진)이 모든 유산을 며느리에게 주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송도순은 17일 밤 11시 채널A '웰컴 투 시월드'에 출연해 장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이같이 말한다.

이날 방송에서 송도순은 “유언 내용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유언장도, 유산도 며느리에 남길 생각”이라며 “이미 며느리에게 남편을 잘 부탁한다는 편지를 써 놓았다. 며느리를 참 잘 만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스튜디오

오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든다. 함께 출연한 연기자 김영옥은 “언제부턴가 여행을 떠날 때나 먼 곳을 가게 될 때 예의 없이 몇 자라도 유서를 쓴다”고 웃을 땀다. 이어 “잠 잘 때 저승사자가 느닷없이 문 앞에서 있을 것 같다. 나를 언제 데려갈지 모르냐”고 털어놓는다.

“아미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는 어머머했다”는 개구우먼 이성미는 자식들에게 매일 편지를 쓰고 있다고 밝힌다. 유방암 투병 경험이 있는 그는 “수술 이후부터 노트에 여러 가지를 적기 시작했다”며 “내가 죽고 난 뒤 슬퍼할 아이들을 위해 엄마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메시지를 일기처럼 써놓고, 아이들에게 남겨줄 유산까지 적어 놓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백솔미 기자

편지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TV 프로그램 17일(목)

Table listing TV programs for April 17th (Thursday) across various channels including Channel A, KBS 1, KBS 2, MBC, SBS, TV 조선, JTBC, MBN, EBS, and Regional Broadcasts. Each entry includes the time slot and program title.